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4문) : 제 5 계명

안태환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예수님의 율법 요약(마22장)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십계명의 두 부분 요약: 하나님 사랑(1-4계명)과 이웃 사랑(5-10계명)

(하렐93문: 이 십계명은 어떻게 나뉘집니까?) ↳ 이 계명을 더 잘 깨닫도록 마7:12 말씀 주셨다.

마7:12 ...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 제 5 계명의 말씀

출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3. 하나님은 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 “네 부모를 공경하라”

① ‘공경하라’ 의미: 공경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קָבַד)’의 명령형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만 나온다.

(1) ‘공경(恭敬)’의 사전적 의미: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 ‘네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는 것’

(2) ‘카베드’의 기본 의미: 무겁다.

삼상4: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삼하14: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 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 카베드의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다.

5계명의 말씀을 직역하면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 ‘존중하라, 공경하라’는 뜻이다.

(3) 구약성경에서 공경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뿐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잠3: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24: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할 때

출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2) 그렇다면 왜 다른 계명에 앞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셨는가?

① 부모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출20:12)

↳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레20:24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통해서 땅을 받게 되므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했다.

②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 직역: 네 날들(your days).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을 가리킨다.

⇒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주시신 분들이므로 마땅히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③ 칼빈 “하나님께서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를 예로 드신다.” (기독교강요 2권 8장 35절)

⇒ 사람은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가장 인자한 사랑을 받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시기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다.

④ 5계명은 부모라는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제유법: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

⇒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권위를 가진 부모라는 권위자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

칼빈 “그리하여 주께서는 가장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 복종에 익숙하도록 만드신다.” (기독교강요 2권 8장 35절)

3) 성경에 나오는 부모에 관한 본문들

창45: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왕하5: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 성경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라 표현한다.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나에게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

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롬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 인간이 태어나 처음 관계 맺게 되는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교사, 선배, 상사와 같은 권위자를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

② 권위자의 태도가 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6: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칼빈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라. 이럴 때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엄에 조금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최상인 하나님의 권력 앞에 굴복한다고 해도 그들의 위엄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다니엘은 그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은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였다.”(기독교강요 4권 20장 32절)

5)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의 여러 관계

① 하급자의 태도

삼상24:11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부족한 군주 사울에 대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삼상24: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 상급자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때 권위를 인정하며 진심어린 조언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우리 자신도 인격과 실력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권위자의 위치에 섰을 때를 대비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② 동급자의 태도

고전12: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빌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민12:2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 서로 누가 높은가 다뤘던 제자들의 모습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 대신에 한 지체되어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③ 상급자의 태도

약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 때로 잘못을 책망하는 일이 필요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모범을 보이며 직위에 어울리는 실력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6)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엡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복이 아님에도 상을 주시는 이유는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